

시정 연구과제 보고서				
훈 련 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일반직무훈련	훈련기관	버밍엄대학교
	성 명	한정훈	과견연도	2021년
	훈련과제	서울시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 주제 (제목)	문화를 중심으로한 영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 사례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영국 리버플 앨버트독 도시재생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주요 추진사업,

제4절 추진체계, 제5절 추진효과

제3장 영국 게이츠헤드 도시재생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주요 추진사업,

제4절 추진체계, 제5절 추진효과

제4장 런던 템즈강변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주요 추진사업,

제4절 추진체계, 제5절 추진효과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문화를 중심으로한 영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 사례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 물자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화된 환경 하에서 세계도시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세계의 우수한 도시들은 창의적인 인재,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와 수변공간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물관, 극장, 갤러리와 같은 문화적 편의시설은 전 세계의 인재와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지식 기반경제에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있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변공간은 공간자체의 독특성에 더해 도시의 편의시설을 결합시켜 매력적인 공공공간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은 특성으로 인해 세계의 우수 도시들은 문화와 수변공간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수변공간을 통합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룬 사례는 영국의 도시재생역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에서 석탄 중심의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국가로서, 물류와 공업용수의 이점 등으로 인해 수변공간에 대규모의 산업시설이 개발되었고 번성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물류환경의 변화와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많은 수변공간의 산업지역이 오염과 방치로 사용되지 않고 황폐화 되었다. 그 후, 1980년 이후로 영국정부에서는 문화와 수변공간을 테마로한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산업도시를 다시 부활시켜 매력적인 도시로 성공시킨 경험을 축적해 왔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리버플 앨버트독 재생사례, 게이츠 헤드 부두지역 재생사례, 런던 템즈강변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리버플 앨버트독 재생사례는 한때 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가 쇠락한 항구도시를 박물관 등의 문화기관 유치와 수변공간의 매력을 결합시켜 재생에 성공한 사례이다. 게이츠헤드의 부두 지역은 “북방의 천사”라는 공공예술작품의 성공에서 비롯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타인강변에 위치한 석탄의 도시 게이츠헤드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창조도시로 변화시킨 사례이다. 템즈강을 따라 펼쳐진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수변공간 재생프로젝트로, 문화와 융합한 활력있는 거리와 문화시설의 배치를 통해 성공한 사례이다.

영국의 수변공간에 산재한 대규모 舊산업시설의 재생과는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는 한강이라는 멋진 친수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한강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자산이다. 서울시에서도 한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강을 활용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프로젝트”, “노들섬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랜드마크 사업”, “용산정비창 미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여의도 개발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문화를 중심으로한 영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례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향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재생사업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리버플의 앨버트독 도시재생사례, 게이츠헤드의 부두지역 도시 재생사례, 런던 템즈강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문화를 중심으로한 수변공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1차 범위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그레이트 선셋 한강프로젝트, 노들섬 한강의 랜드마크 사업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에 대해 벤치마킹할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최종 연구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문헌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배경, 추진전략, 주요 추진사업,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현장확인 등을 수행한다. 사례조사 결과와 현장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2장 영국 리버풀 앨버트독 도시재생

제1절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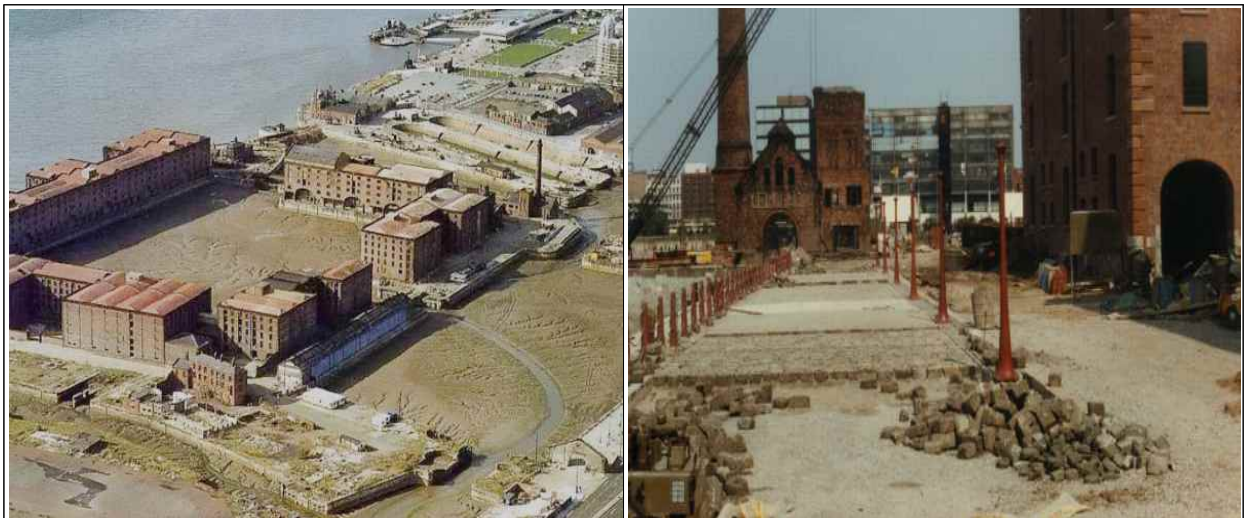
영국 북동부 아일랜드 연안에 위치한 리버풀은 대서양을 통해 북아메리카로 가는 대서양 횡단 항해의 출발점으로서의 지리적, 환경적 이점으로 인해 17세기부터 해상무역과 제조업이 번성하였다.



19세기 초반에는 전세계 해상무역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와같은 맥락하에, 앨버트독은 영국 리버풀 해안가에 위치한 역사적인 항구로, 1841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1846년에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이 항구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철, 벽돌, 돌로만 건설되었으며, 이 항구로 인해 19세기말 까지 리버풀이 세계 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항구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면섬유, 담배, 설탕 등 물품의 수출입을 위한 주요 지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창고에 상품을 저장 하고, 보세창고 운영, 관세의 부과 등 상품의 효율적인 운송과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세계적으로 산업의 물류구조가 선박에서 기차위주로 바뀌었으며, 대형 화물선의 등장과 컨테이너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낙후된 앨버트독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 상업용 항구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중 군항인 리버플이 독일군의 공습으로 항만을 포함하여 도시가 황폐화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항만시설이 방치되는 등 한때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플 앨버트독은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물이 방치되어 쇠락한 도시의 상징으로 전락하였다.

이와같은 앨버트독의 쇠퇴로 인해 리버플의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치솟아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리버플을 떠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1981년에는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 리버플이라는 도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앨버트독 일대

이와같은 배경 하에, 영국정부와 리버플시는 리버플의 도시전체의 재생을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리버플시의 중심적인 산업거점이었던 앨버트독 재생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198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앨버트독을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앨버트독은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위치적 가치, 산업역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물리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가용공간과 시설물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리버플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사업대상지로서 선정되었다. 각각의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적으로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로 기존의 도시 인프라 및 교통망의 용이한 통합이 가능하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재생사업 대상지였다. 수변공간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역사적, 문화적으로, 앨버독은 과거 수백년간의 전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이다. 물류를 바탕으로한 해양항만의 역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건축 문화유산을 가진 곳으로, 문화중심 재생 전략 추진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였다.

셋째, 앨버트독에는 과거 항만시설, 창고 등 다양한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건물들은 견고한 구조와 불연성 디자인으로 인해 문화시설, 레저시설, 카페 등 소매상점 등 다양한 용도로 리모델링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재생공간의 확보차원에서 유리하였다.

이와같이, 앨버트독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수변공간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를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재생 컨셉을 바탕으로, 1981년 리버플에 도시재생을 주도할 “머지사이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비틀즈의 멤버인 존레논이 사망하면서 전세계로부터 2만여명의 추도객이 리버플에 몰려들었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리버플 당국에서는 리버플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한 도시재생 추진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리버플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동력확보를 위한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2절 추진전략

1981년 영국정부는 앨버트독을 포함한 머지사이드 지역의 재생을 위해 머지사이드 개발공사(Merseyside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알버트독 재생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항구지역을 문화, 레저, 경제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이 지역을 재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리버플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앨버트독 재생프로젝트의 추진전략은 본 지역의 지리적 위치, 문화와 역사성, 물리적 환경 등을 기반으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오래된 항구도시로서 가진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기찬 문화와 여가 여행지로서의 리버플에 초점을 맞추었다. 테이트 리버플 미술관,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국제노예박물관 등 핵심적인 문화시설들을 부두내에 유치하거나 설립하였다. 이 기관들은 그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목적지로서 이 지역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항구내 화물창고, 화력발전소 등 과거의 산업유산을 활용하여 레스토랑, 카페, 상점, 바를 포함한 레저시설의 개발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특히, 리버플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밴드 중 하나인 비틀즈 멤버의 고향으로서, 1980년 존레논의 사망을 기점으로, 비틀즈 스토리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비틀즈를 도시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친수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워터프론트로서의 독특한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수변 공간과 깊이 연결된 알버트 독의 해양 유산을 보존하고, 창고와 부두와 같은 역사적인 건물과 구조물을 신중하게 복원하면서 해양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워터프론트 산책로를 조성하여, 문화시설, 여가레저시설 등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재생디자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리버플 비엔날레, 국제 머지사이드 리버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여 앨버트독의 공공공간과 다양한 행사를 수변공간에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경제와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춰, 리버플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앨버트독의 광범위한 항만시설과 물류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장려하여, 다양한 투자자와 자본을 끌어들이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였다. 친수공간과

문화를 결합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숙박, 식사,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방문객 지출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도시재생 전략을 구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알버트독 재생사업의 방향은 이 지역의 독특한 수변환경과 문화재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수변공간의 건축유산 보존, 핵심 문화기관의 유치를 통한 박물관 등의 건립, 수변 문화행사 및 축제개최, 다양한 복합용도의 건축을 통한 포용성의 확대를 통해 전세계 관광객들의 목적지로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도시로 진화하고자 하였다.

제3절 주요 추진사업

알버트독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영국정부는 1981년 알버트독을 포함한 머지사이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머지사이드 개발공사(MDC)를 설립하였으며, MDC는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983년 부동산개발회사인 Arrowcroft Group을 시행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우선, 부두시설내의 오염된 진흙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작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과 구조물을 분류하여 철거할 대상과 복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복구가 가능한 역사적인 건축물은 보존에 초점을 맞춰 복원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테이트모던 리버플 등 저명한 문화기관을 유치하는 등 문화시설 건립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1981년부터 시작된 알버트독 재생사업의 결과, 레스토랑, 카페 등의 소매상점이 입주하고, 1984년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을 전면적으로 개관하였다. 1988년 테이트 리버플 미술관이 개관에 맞춰, 1차 재생사업을 완료한 알버트독이 재개장하였다. 그 후, 1990년 부두 내 비틀스 스토리 박물관이 오픈하고, 1994년에는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건물 내에 국제 노예박물관이 추가 개장하였다.

① 앨버트독 사우스 개발

앨버트 독 사우스 개발 프로젝트는 독 단지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자리한 산업시설을 식당, 카페 등의 소매공간, 레저시설, 문화시설, 사무실, 주거 등의 상업공간과 주거공간 등의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을 위해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보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복원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건축재료와 기술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레스토랑, 카페 등의 소매상점의 유치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임대료 면제의 혜택, 유명 체인점 브랜드와의 협력 등 다양한 전략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은 리버풀 국제정원 축제의 일환으로 1980년에 임시공간을 임대 운영하다가, 1984년에 앨버트독내의 창고로 사용됐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은 수백년간 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리버풀 앨버트독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리버풀 해양사, 항만작업 변천에 관한 자료, 선박 및 해양도구 등을 기본 콘텐츠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③ 테이트 리버플 미술관

리버플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강점으로, 머지사이드개발공사는 문화기관 유치노력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맨체스터, 리즈 등의 경쟁도시를 물리치고 테이트측과 협의하여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미술관은 기존의 창고를 개조하여 건축되었다. 복원공사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벽돌과 주철기둥은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유연하게 현대미술의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었다. 공사를 마치고 1988년에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운영 첫 해에 6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등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 리버플에 개관됨에 따라, 리버플은 영국의 선도적인 문화적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④ 비틀즈 스토리 박물관

1960년대 리버풀에서 결성된 상징적인 록 밴드 비틀즈의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80년 멤버중 한명인 존레논의 사망시

전 세계적으로 2만여명의 추모객이 리버풀에 몰려들면서 그 가능성을 엿보았고,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건립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박물관의 건립은 비틀즈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Apple Corps Ltd와 현지 투자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다.

박물관에는 비틀즈의 역사, 유산,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등 비틀즈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다. 비틀즈 스토리 박물관은 리버풀의 도시 재생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문화예술관광의 명소로서 리버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 리버풀이 유네스코 음악도시로 선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테이트모던 리버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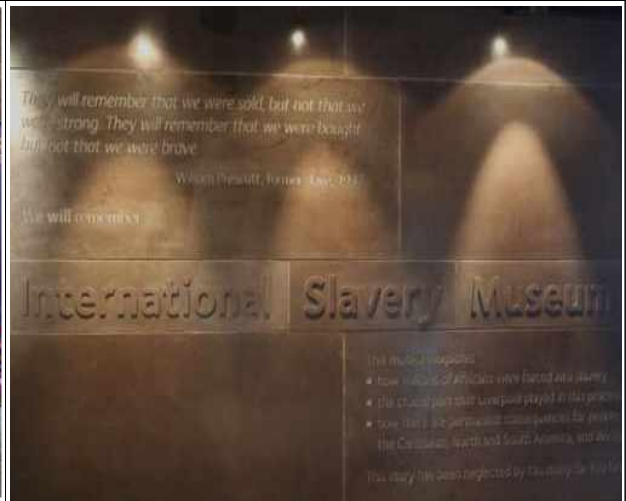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⑤ 국제노예 박물관

리버풀은 18세기에 정점을 찍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약150만명의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을 신세계로 운송하는데 책임이 있었다. 리버풀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노예박물관으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아픈 리버풀의 역사를 반영했다. 박물관 설립은 리버풀 국립 박물관 주도로 지역사회단체, 학계 및 종교단체와 협의하면서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 노예무역폐지 200주년의 일환으로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전시콘텐츠는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 역사, 노예제도, 노예의 인권,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틀즈 스토리



국제노예박물관

앨버트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리버플 도시전체의 재생을 자극하고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앨버트독과 이어지는 인근지역인 캐닝독, 스와핑독, 발틱 트라이앵글의 도시재생을 촉진시켜, 그 지역 일대의 획기적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앨버트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으로, 앨버트독과 인접한 원도심의 재생사업인 리버플원(Liverpool One)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동력을 제공하였다. 도심에 있는 42에이커(17만 m^2)에 대한 재생사업으로 2004년까지 1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상업, 주거, 오피스, 레저시설을 공급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앨버트독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었다. 백화점, 호텔, 버스터미널, 주거, 공원과 녹지 등 약30개의 건물이 신축되어, 주거, 업무,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심에 활력을 창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지구인 앨버트독과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연결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문화를 융합한 혁신적인 도시로 리버플은 재탄생하게 되었다.

⑥ 매력적인 수변환경 조성

리버플 앨버트독 재생사업에서는 친수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머시강에 인접하여 공공공간, 수변산책로,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액티브한 수상활동 촉진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보트투어, 수상택시, 마리나 시설 같은 명소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앨버트독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비틀즈 조형물



정비된 산책로

제4절 추진체계

앨버트독 도시재생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재생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지원, 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영국 보수당 정부에 의 주도 되었다. 1981년 설립된 머지사이드 개발공사(MDC)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머지사이드 시당국(Merseyside County Council)은 도시계획과 문화기관 설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회사인 Arrowcroft Group이 선정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민간투자 유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부동산 소유자와 개발자들은 각자의 부지를 MDC의 재생기본계획과 건축지침에 부합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복원·정비하였다. 또한, MDC와 리버플시 당국의 노력으로 다양한 문화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박물관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의 선정, 건물의 역사성을 고려한 복원작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제5절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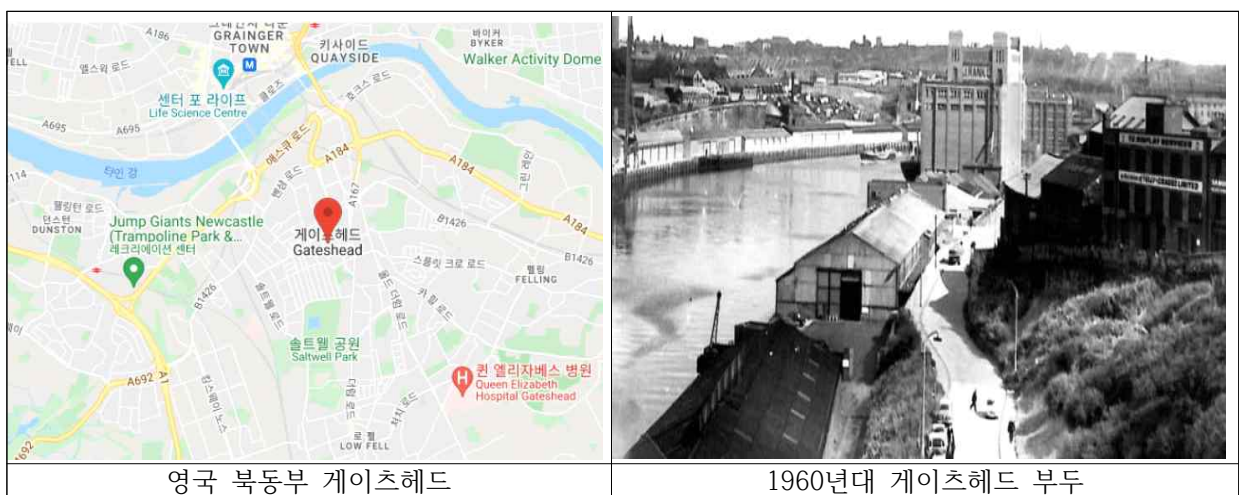
앨버트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리버플시 도시 전체의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앨버트독의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리버플은 2019년 영국에서 5번째로 해외관광객이 많은 도시로 선정되기

도 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다수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전시회, 공연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은 리버플 도시전체의 재생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인근지역인 캐닝독, 스와핑독, 발틱 트라이앵글의 도시재생을 촉진시켰다. 앨버트독의 성공과 이어진 원도심 개발사업인 리버플원 재생사업의 성공에 기인하여, 리버플시는 2008년 유럽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리버플시는 국제적인 관심속에서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제3장 영국 게이츠헤드 도시재생

제1절 추진배경

게이츠헤드는 영국 잉글랜드 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인강을 사이에 두고 뉴캐슬과 접하고 있는 인구 20만명의 소규모 도시이다. 타인 강 남쪽 독에 위치한 게이츠헤드는 수세기에 걸쳐 타인강의 물류를 활용한 전통산업의 발전과 쇠퇴의 부침을 겪어왔다. 게이츠헤드는 영국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던 지역으로,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도시는 탄광업, 조선업, 철강업 등으로 번창하였으며, 강을 따라 위치한 게이츠헤드 항구지역은 이러한 산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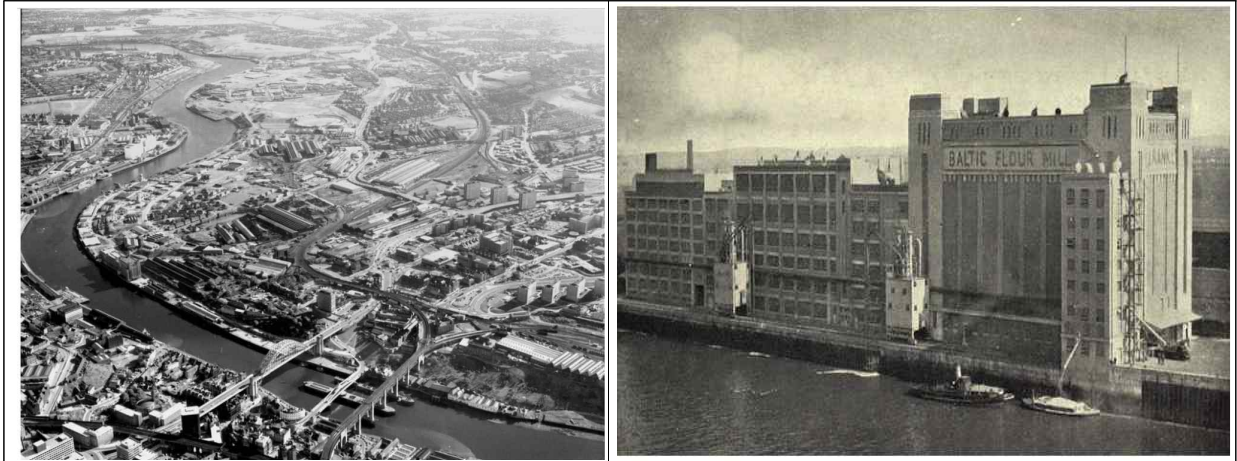


영국 북동부 게이츠헤드

1960년대 게이츠헤드 부두

하지만, 1970~1980년대 탈산업화에 따라 조선소와 탄광의 폐쇄 등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이에따라, 게이츠헤드도 다른 영국의 산업도시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실업, 사회적 박탈, 그리

고 물리적 기반 시설의 악화를 경험했다. 또한, 산업의 쇠퇴는 게이츠헤드 항구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수변공간은 버려진 창고와 공터, 황폐한 건물들만 남게 되었다.



1980년대 게이츠헤드 부두

이와같은 맥락하에, 1990년대 접어들면서 게이츠헤드 의회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게이츠헤드 도시재생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 게이츠헤드 시의회에서 쇠락한 게이츠헤드의 부활을 위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북방의 천사”라는 대형 야외 조형물을 시 외곽에 설치하였다. 본 작품의 설치 첫해에 1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 사건은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로 관광객이 몰려들면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결국, 게이츠헤드 부두 도시재생사업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타인강 워터프론트는 게이츠헤드 도시재생 프로젝트 초기 목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타인강변이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타인강변은 과거로부터 게이츠헤드 역사와 산업의 중심지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많이 있었다. 또한, 전통산업의 쇠퇴는 강변지역을 황폐화시켰으며, 제조업이 활황이었을 당시의 공장, 창고 등 리모델링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산업유산이 버려진 채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타인강 수변은 인구 30만 규모의 뉴캐슬과 인접한 지역인 점을 꼽을 수 있다. 게이트워드와 뉴캐슬은 예로부터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서 수변강변 개발을 통해 양도시간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셋째는 워터프론트 지역은 게이트헤드의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한 도시재생의 테마와도 부합되며, 서비스 산업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를 느끼고 여가를 제공하는 최적으로 장소로서 매력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제2절 추진전략

게이트헤드 시의회는 ‘북방의 천사’라는 대형 공공예술작품의 성공에 고무되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한 게이트헤드 부두 수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추진목표는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재생을 진행하되, 수변공간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전략으로 지리적 특성, 문화적 유산, 산업유산의 역사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지리적 관점에서, 강이라는 자연환경 자체가 그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타인 강을 따라 공공공간, 산책로 및 명소를 개발하여 친수공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또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뉴캐슬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설하여 양도시간의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공공간,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강변 산책로를 조성하여 보행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였다.

두 번째, 문화적으로, 재생 프로젝트는 문화 인프라, 공공 예술, 문화 행사에 투자함으로써 게이트헤드의 독특한 문화유산의 유지·개발·장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 지역을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다.

세 번째, 산업도시로서 게이츠헤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기존 건물과 시설물 철거 후 신축 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재사용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생전략을 취하였다. 밀가루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발틱 현대미술관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경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수변지역에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여 관광산업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게이츠헤드 재생사업의 방향은 문화와 예술이 주도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수변환경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또한 뉴캐슬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양 도시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산업도시로서의 게이츠헤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생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재생방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도시로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문화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된 게이츠헤드를 지향하였다.

제3절 주요 추진사업

앨버트독 재생사업은 게이츠시의회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바, 시의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1998년 “북방의 천사” 공공미술프로젝트 조형물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한 종합적인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선도사업지로 게이츠헤드 부두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

재생계획의 수립시 지역개발공사인 One North East의 지원 아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영국 밀레니엄 위원회의 공모사업 선정된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릿지를 2001년 완공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뉴캐슬 지역에 보행로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재생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방문객들이 게이츠헤드와 뉴캐슬 지역을 자유로이 보행로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효과 등 재생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2002년에는 산업유산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밀가루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최첨단 현대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4년에는 소라껍데기 디자인 컨셉의 국제적 규모의 세이지 음악당을 완공하였다. 연이어, 랜드마크적 문화시설을 개관하면서, 예술문화도시로서의 게이츠헤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동시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광장, 공원, 수변산책로 조성 등 공공공간의 개발과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을 강변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다.

① 북방의 천사 제작설치

1998년 게이츠헤드 시의회는 북방의 천사라는 대형 야외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다. 본 조형물은 게이츠헤드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리고, 게이츠헤드가 탄광의 도시에서 벗어나 미래의 발전된 도시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지역의 독특한 랜드마크로 기획되었다. 조각가 앤서니 고펠리가 1만개의 빈 코카콜라 깡통을 이용하여 만든 날개달린 거대한 인간의 형상으로, 높이는 20M로 날개가 50M로 영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다. 설치위치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영상을 주는 것을 목표로 게이츠헤드시 외곽 남쪽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다. 제작설치 비용은 약100만 파운드로 영국예술위원회의 국가복권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게이츠헤드 시의회, 민간 후원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본 작품은 영국최고의 공공미술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게이츠헤드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각인되면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한 도시재생추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②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릿지 건설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다리는 게이츠헤드와 뉴캐슬 사이의 타인 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다리로 2001년 개통되었다. 게이츠헤드와 경제,문화적,사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뉴캐슬 사이의 연결성을 개선하여, 양도시간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영국정부가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게이츠헤드에서 응모하여 당선된 작품으로, 영국 밀레니엄 위원회와 유럽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다. 다리는 길이 126m, 폭 8m의 두 개 아치로 구성되었다. 하루에 두 번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는 형태로 건축. 예술성을 가미한 독창적 설계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었다.

다리의 완공으로 게이츠헤드와 뉴캐슬 사이의 도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 다리는 인근의 발틱현대미술관과 세이지 게이츠헤드 음악당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면, 게이츠 헤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다,



북방의 천사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릿지

③ 발틱 현대미술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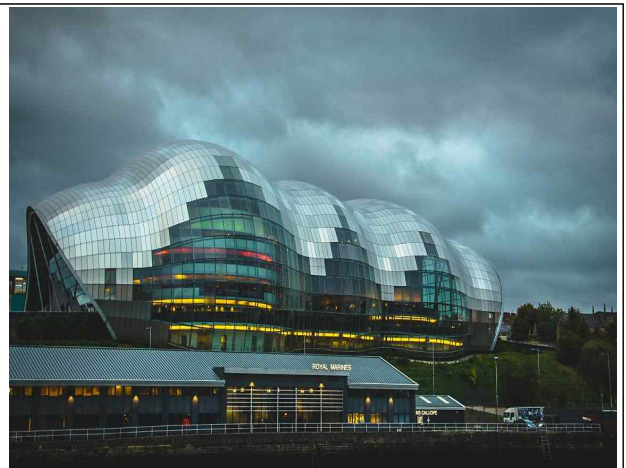
발틱 현대미술 센터는 게이츠헤드 산업유산인 밀가루 공장을 현대적인 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건립되었으며, 1998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2년 개관하였다. 이 센터는 장소성에 기인한 독특한 산업유산을 현대 예술을 보여주는 미술관으로 개조하였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타인강변에 위치하여 가시성과 접근성이 양호하며, 도시재생의 핵심동력으로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다는 점에서 게이츠헤드 부두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건물디자인은 건물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은 보존하면서 현대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여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최첨단 시설을 지향하였다. 5개의 갤러리, 스튜디오, 영화관, 강의실, 도서관, 기념품 샵과 레스토랑을 배치하였으며, 매년 2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게이츠헤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

④ 세이지 음악당

세이지 음악당은 소라껍데기를 디자인 컨셉으로 하여, 1,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리허설룸, 음악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200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 개관하였다. 이 음악당은 세계적인 뮤지컬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음악가 지망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음악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발틱 현대 미술센터, 게이트헤드 밀레니엄 브릿지와 함께 관광객의 방문을 증가 시키고, 이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건축적 랜드마크를 지향하였다.



발틱 현대미술 센터



게이트헤드 세이지 음악당

④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

게이트헤드의 재생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공공공간과 편의 시설의 개발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용공간은 공원, 공공광장, 수변산책로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또한, 게이트헤드와 뉴캐슬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 브릿지가 건립되고, 각 랜드마크 건물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보행동선을 쇼핑센터, 식당, 카페, 레저시설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상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⑤ 주택 및 상업용도 개발

게이트헤드시의회는 게이트헤드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와 상업공간도 재생프로젝트에 포함

하여 함께 개발하였다. 사업은 게이츠헤드 시의회, 주택협회, 민간 개발자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분에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고, 민간개발자는 자금조달과 건설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은 2000년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문화, 산업,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목적지로서 게이츠헤드 부두지역을 변모시켜 나갔다.

제4절 추진체계

게이츠헤드 부두지역 재생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공통된 목표아래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게이츠헤드 시의회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시의회는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는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발공사 성격의 지역개발기관인 One North East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지침 제공, 민간부문 투자유치, 자금투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부문은 부동산 개발업자, 문화기관, 사업주,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사업별로 시의회, 개발업자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제5절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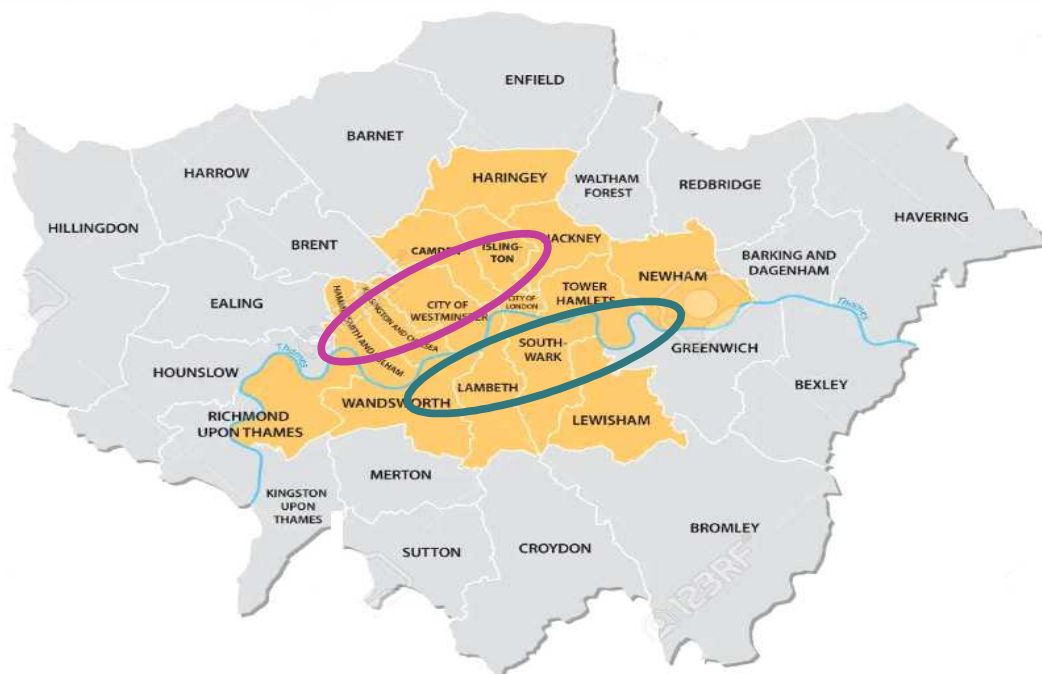
게이츠헤드 부두지역 재생프로젝트는 게이츠헤드시를 쇠락하고 낡은 황폐한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경제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문화관광적 관점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컨셉으로한,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릿지, 발틱 현대미술 센터, 세이지 음악당 등 문화랜드마크의 개발은 관광지로서의 게이츠헤드의 매력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다. 환경적 관점에서, 새로운 주택의 개발과 교통, 교육 등 지역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또한, 광장, 공원, 강변

산책로 등의 공공공간의 조성과 상업시설의 입주로 생활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게이츠헤드시와 뉴캐슬시간의 협력체제가 더욱 긴밀해졌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재생사업의 성공은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4장 런던 템즈강변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1절 추진배경

런던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새로운 천년의 도래를 기념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에서 템즈강변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일련의 야심찬 도시재생사업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런던의 주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준비된 사업이다. 런던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문화, 경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런던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도전과제에 직면에 있었다. 런던은 City of London과 템즈강을 기준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북쪽과 서쪽에는 왕궁이 위치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남쪽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동쪽은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바, 런던의 중심은 북서쪽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런던시 남부와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현재, 데이트모던 미술관이 입주한 부지는 화력발전소와 관련시설 등이 있던 자리로, 남부 템즈강변을 따라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버려진 산업부지가 산재해 있었다. 또한, 공공공간이 부족하고 강변과 주변 지역 및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보행자의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아울러, 남부의 템즈강변은 그 당시 상업, 문화, 레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바, 현재의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산책하고 하는 등의 활력있는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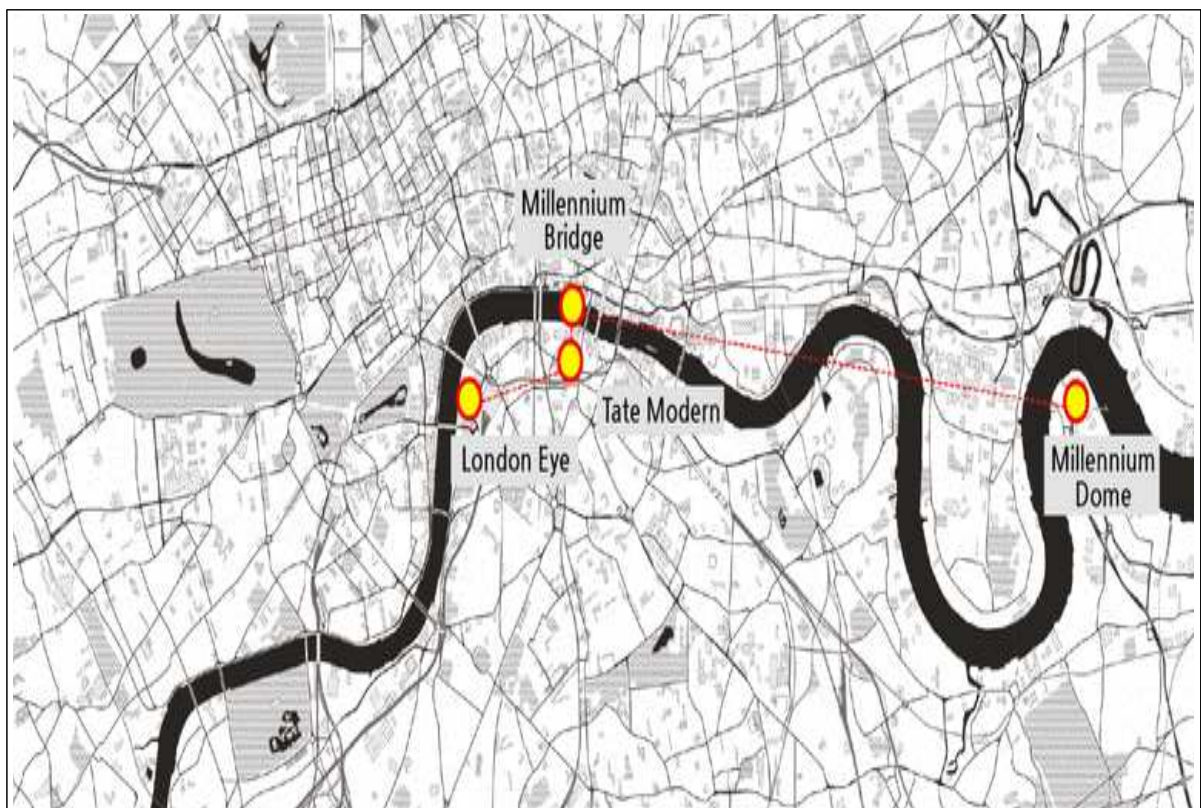
사회, 경제적으로 템즈강을 기준으로 북서쪽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거주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이 집적되어 활기찬 모습과는 다르게 남부 지역과 동부지역은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과 편의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은 런던시민으로서 공동체와 정체성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같이, 템즈강변을 중심으로한 남동부 지역은 북서부와 비교시 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었는바,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치적으로, 런던중심부에 인접한 템즈강변의 개발은 런던 중심부에 있는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자연스런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버려진 공장, 창고 등의 산업시설과 부지를 재생이용도변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바 도시재생프로젝트 대상으로서 템즈강변은 매력적인 곳 이었다. 아울러, 수변공간만이 갖는 독특한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연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템즈강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안고있는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런던이 문화도시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템즈강변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런던 중심부와 접근성, 사업의 파급효과, 기존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과의 연계성, 수변공간으로서 독특한 장소성, 템즈강 기준 남북간 균형발전, 재생가능 공간의 확보의 용이성, 런던역사 및 경관에 있어서 템즈강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결국은, 남부 템즈강변의 재생을 통해,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런던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제2절 추진전략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주요목표는 문화 및 레저 서비스 향상, 경제적 성장,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통합을 들 수 있다. 활용도가 낮은 노후건물이나 산업시설 등을 용도를 변경하여 재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투자, 관광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또한, 런던아이-테이트모던-밀레니엄브리지-밀레니엄돔을 연계하여, 문화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부와 동부로 이동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회적 화합을 모색하였다. 문화기관 건립을 통해 문화와 레저 서비스를 향상을 지향했다.



랜드마크 시설의 연계를 통한 문화와 사람의 확산

추진전략으로는 문화를 바탕으로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 수변공간 특성을 활용한 개발,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테이트모던, 밀레니엄돔과 같은 대형의 문화 중심의 랜드마크 시설을 개발하여 지역재생의 상징으로 삼고, 문화를 중심으로한 재생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문화시설의 설치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워터프론트 공간으로서 랜드마크 시설과 연계하여, 광장, 공원, 산책로를 조성하고,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수변공간과 런던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런던아이와 같은 레저시설을 적절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밀레니엄 브릿지의 조성을 통해 템즈강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북부의 런던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세인트폴 대성당과 남부의 테이트 모던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상호 시너지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세 번째, 랜드마크 시설의 건립과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레저와 문화시설 제공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계획하였다.

제3절 주요 추진사업

1990년대 초 영국정부는 템즈강 남부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남쪽 템즈강변의 도시재생을 통해 런던 전체의 도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밀레니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1994년 재생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하여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총괄할 밀레니엄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사업의 재원은 영국복권기금(UK National Lottery)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995~1996년에 테이트모던 미술관, 밀레니엄돔 등의 랜드마크 건립사업과 공공공간에 대한 세부계획과 디자인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 기존 건물의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부터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돔, 런던아이, 밀레니엄 브릿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2000년 런던아이, 테이트모던 미술관, 밀레니엄돔이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2000년에 오픈 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흔들림으로 인해 보수공사를 거쳐 2002년에 재개장 하였다. 밀레니엄돔은 당초 전시공연장에서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름도 O2 Arena로 변경하여 2007년에 재개장하였다.

① 런던아이

런던 아이는 런던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램버스 지구(London Borough of Lambeth)에 설치되었다. 높이 135미터 달하는 현존 최고의 세계최대 규모의 조망용 구조물로서, 동시에 8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갖춘 32개의 캡슐로 이루어져 있다. 런던 아이는 360도로 움직이는 동적인 공간에서 아름다운 런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런던 아이는 그 자체로 기존 런던의 건축물들과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마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전 건축물들과 여러 위치에서 중첩됨으로써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런던의 도시경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런던 아이는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등 런던의 최고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낙후된 램버스 지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런던아이



테이트모던

②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이 위치해 있는 템즈강변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물류의 중심지로, 공장과 물류창고가 입지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기차 중심의 물류환경의 변화와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수많은 공장 and 창고가 폐쇄되고, 그 곳에 있던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도 1981년 폐쇄된 후 버려진 채 도시의 흉물로 20여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테이트모던은 이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2000년 개관한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이다. 1990년대 초반 밀레니엄위원회에서는 이 발전소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테이트재단도 테이트브리튼의 전시공간이 비좁아 더 큰 공간이

필요했는바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테이트재단은 런던 중심가에서 가까운 입지, 필요한 대규모 공간의 확보, 런던의 대표적 산업 유산으로서의 화력발전소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이 곳을 미술관 부지로 선정했다. 1994년 국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철거보다는 개조방식을 택한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테이트 Jacques Herzog와 Pierre de Meuron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의 디자인은 건물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80%이상의 발전소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는 혁신설계를 통해 개조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특색있는 굴뚝은 보존되었으며, 엔진룸이었던 터빈홀은 전시, 강연, 공연, 행사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밀레니엄 브릿지의 개관과 함께, 세인트폴대성당- 밀레니엄 브릿지-테이트모던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런던 도보관광의 대표적 루트가 되었으며, 2000년 개관 후 매년 600만명이 방문하는 런던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었다. 테이트모던의 성공은 버려진 공장과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던 이 지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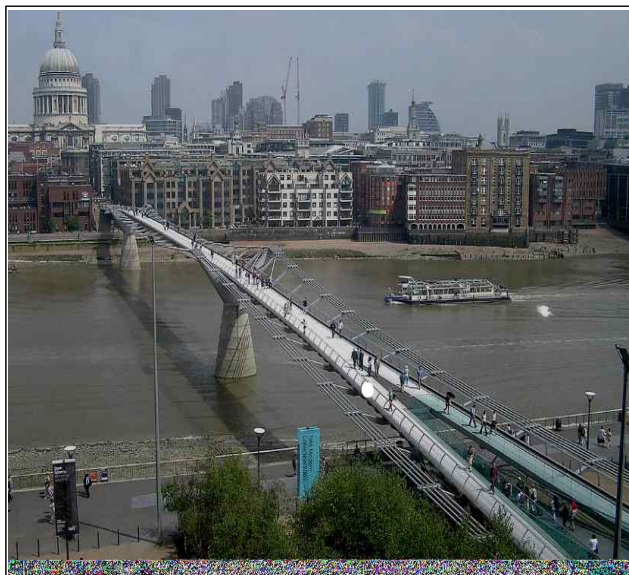
③ 밀레니엄 브릿지

밀레니엄 브릿지는 길이 325m, 폭 4m로 템즈강 북부지역의 런던의 상징인 세인트 폴 대성당 등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남쪽의 세계적 미술관인 테이트모던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이다. 밀레니엄 브릿지의 설치로 인해 강북의 변화한 센트럴 런던과 낙후된 강남의 서더크 지구가 연결되면서, 그 자체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사람이 문화가 밀레니엄 브릿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면서 낙후된 서더크 지구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광측면에서도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템즈강, 세인트폴성당, 테이트모던의 풍경은 방문자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명소로 꼽히고 있는바, 연간 방문객 550만명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다.

④ 밀레니엄 돔(O2아레나)

밀레니엄돔은 영국 런던 남동부의 그리니치 반도에 건립되었으며, 당초에는 새천년을 맞아 혁신, 창의, 기술적 진보를 전시하기 위한 전시공연장으로 기획되었다. 100m높이 12개의 타워로 지지되고 직경 365m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지붕 구조체로서 2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연장으로 2000년에 개장하였다, 하지만, 밀레니엄 체험 전시회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저조했고, 이 전시가 끝난 후 수익성 문제로 인해 몇 년간 방치되었다. 그 후, 2004년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에 매각되었으며, 실내경기장, 공연장, 문화 및 쇼핑시설로 용도변경 된 후 2007년 O2아레나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식적으로 개장하였으며, 그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밀레니엄돔(O2아레나)과 함께 커뮤니티 중심의 21세기 미래형 주거지의 모델로 탄생한 밀레니엄 그리니치 빌리지가 낙후된 그리니치 반도의 재생을 주도하고 있다.



밀레니엄돔



밀레니엄 브릿지

2000년 이후 현재까지도 템즈강변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의 도시재생은 계속 진행 중이다.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런던아이, 밀레니엄 돔 (2007년 O2아레나로 변경) 등 문화와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랜드마크 건립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템즈강 수변을 중심으로 랜드마크가 보행로로 연결되고, 사람이 그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었다. 그 결과, 주거, 상업, 문화공간의 확장이 주변지역으로 까지 파급되면서 지역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했던 템즈강 남부지역 및 동쪽지역 발전의 가속화에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였다.

제4절 추진체계

밀레니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부와 민간 기관의 강력한 협력 덕분이다. 프로젝트의 계획, 실현,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생프로젝트는 1994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총괄할 밀레니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밀레니엄 위원회는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일정 등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영국복권기금(UK National Lottery)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고 분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조직, 민간 부문 파트너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런던시에서는 밀레니엄위원회에서 마련한 밀레니엄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민간에서는 사업대상지별로 선정된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재생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부, 런던시 등 지방당국과 협력하면서 재생계획의 전반적인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공사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하였다.

제5절 사업효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런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전 보다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템즈강변 남부지역과 동쪽지역에 대한 재생을 촉진하여, 그 결과 새로운 명소와 레스토랑, 호텔, 업무용 빌딩 등의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투자와 상업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관광측면에서는 런던아이,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등이 인기있는 관광명소가 되면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는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근현대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테이트모던,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O2Arena, 런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런던아이의 개관으로, 런던에서 전보다 더 향상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런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하여 런던시민의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유구한 역사문화 시설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그간 런던의 중심지는 북서부에 치우쳐 있었으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의 축을 템즈강 남부와 동부로 확대 시켰다. 랜드마크 시설을 기준으로 사람과 자본이 이동하고, 이는 결국 주변지역 까지 도시재생사업이 확산되었다. 이는 결국, 남부와 동부지역의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와 수변공간을 통합한 영국의 대표적인 재생사례인 리버플 앨버트독 재생사례, 게이츠 헤드 부두지역 재생사례, 런던 템즈강변 밀레니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전략, 주요 추진사업, 추진체계, 사업효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서울시에서도 한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강을 활용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프로젝트”, “노들섬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랜드마크 사업”, “용산정비창 미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도시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배경이 서로 달라서, 영국의 도시재생사례를 그대로 서울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문화를 중심으로한 수변공간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성은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와 수변공간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도시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맥락이 만들어져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리버플시의 국제노예박물관,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 비틀즈 스토리 박물관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한강의 역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 발전의 역사 등 서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 보편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역사가 오래된 기존의 건축물이나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고,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다. 테이트 리버플,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 센터, 테이트 모던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또는, 리버플 비틀즈의 사례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의 고향으로서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바, 한류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의 건립이나 정기적인 한류 공연 시설의 건립은 검토할 만하다.

세 번째, 수변공간의 독특한 매력과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하다는 수변공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공공공간(공원, 광장 등), 수변 편의시설(카페, 레스토랑 등), 보행자 산책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랜드마크간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보트투어, 수상택시, 마리나 시설과 같은 수상활동과 명소를 도입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매력과 활력을 더했다. 수변지역과 원도심의 풍부한 문화, 레저, 쇼핑시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양 지역간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한강과 가까운 압구정동, 앞으로 개발될 용산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과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고, 한강에 수상공연시설, 수상보트 투어 등 수상 레저시설의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

네 번째,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의 도입이다. 게이츠헤드의 경우, 북방의 천사, 발틱 현대예술 센터, 세이지 음악당이라는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 건립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한강의 경우, 노들섬과 여의도 등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의 건립이 검토할 만하다. 다만, 랜드마크 시설 1개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과 자연스러운 연결과 통합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활력있는 공간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집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상업, 문화, 레저 등이 융합하여 어우러지는 공간의 창출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서울시, 2018.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영국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
3. 이성복, 2010. 영국의 지역개발 정책과 도시재생
4. 천현석·김근태, 2008.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5. Hussein, Mohamed M. Fageir, 2015. Urban regene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urban waterfront: a case study of Liverpool waterfront regeneration
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Cultural Event and Urban Regeneration: Lessons from Liverpool as the 2008 European Capital of Culture
9. Paul Jones & Stuart Wilks, 2004, Capitalising Culture : Liverpool 2008
10. Christopher Bailey & Steven 2007. Culture led urban regeneration and the revitalisation of identities in Newcastle, Gateshead and the North East of England
11. Benneworth, GJ Hospers, 2005. Rebirth of a quayside: the regeneration of Newcastle-Gateshead
12. S Miles, 2006. Small city - big ideas: Culture-led regeneration and the consumption of place
13. G Baeten, 2000. From community planning to partnership planning. Urban regeneration and shifting power geometries on the South Bank, London
14. R Imrie, L Lees, M Raco, 2009. Regenerating London
15. <https://liverpool.gov.uk>
16. <https://www.london.gov.uk>
16. <https://www.gateshead.gov.uk>